

1. 향후 전망이 불투명한 DDA 농업협상... 그러나 내년 초 타결 가능성은 매우 커

○ 내년 말 타결 목표로 진행돼 온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끝날 공산이 커지고 있다. 11월 28일 통상교섭본부와 외신 등에 따르면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은 12월 13일 홍콩 WTO DDA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초안은 농업과 비농산물시장접근(NAMA)을 포함한 6개 부문별 협상 과제를 정리했지만 분야별 의장들이 제시한 초안에서 진전을 이루는 데는 실패했다.

○ 농업협상에 있어서는, 펠코너 농업위원회 의장이 제시한 시장접근(관세감축), 국내보조, 수출경쟁, 개발 이슈 등에 관한 협상의 진전 상황을 정리했을 뿐 구체적 수치나 타결 기한 등은 여전히 빈 칸으로 남아 있다. 이처럼 DDA 각료회의 초안 작업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는 것은 농업, 비농산물(주로 공산품), 서비스 등 분야별로 국가별 이해가 첨예하게 부딪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홍콩 각료회의는 선언문 초안도 없이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라미 총장은 초안에서 “DDA 협상의 완벽한 모델리티(세부원칙)가 홍콩 각료회의에서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DDA 농업협상의 실패라고 선불리 단정해서는 안된다. 홍콩 각료회의 이후 내년 초에 또 다른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쟁점이 되고 있는 각종 의제들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시도가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 이에 한농연은 12월 12일 총 169명의 홍콩 투쟁단을 파견하여 DDA 농업협상에 적극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한농연은, 아시아농민연합(AFA)를 비롯한 전 세계 농민단체들과의 농민 집회와 세미나 등을 통하여 각국 농업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무분별한 농업개방만을 강요하는 WTO 체제의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해 나갈 것이다.

2. 근본적 농업 희생대책 없는 쌀 협상 국회비준 통과...2006년 2월 13일 대규모 농민 집회 개최 계획

○ 한농연 및 농민단체들의 강력한 저지 투쟁에도 불구하고, 쌀 협상 국회비준 동의안이 11월 23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한농연 및 농민단체들의 10대 농정 요구사항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 및 국회의장이 '농민단체-국회-정부' 간 3자 협의기구 구성에 대한 초보적인 논의만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다.

○ 11월 정용품·오추옥·한상민 농민이 음독 자결한 이후, 전용철 농민이 11. 15 농민대회에서 경찰에게 머리를 가격당한 뒤 11월 24일(목) 새벽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와는 달리, 전용철 농민은 서울기동대 소속 전경에게 방패와 곤봉으로 머리와 가슴을 집중 구타당하여 외상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의 폭력 과잉진압에 대한 농민·시민사회단체들의 항의가 거세어지고 있는 등 사태가 급변하고 있다.

○ 쌀 협상 국회비준 이후에도 한농연이 농업계 내외부에서 주도성을 유지하고 조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근본적인 농업 회생을 위한 농정 대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현실적이며 효과적인 방안을 적극 강구·실천해 나가야 한다. 한농연 및 농민단체들은 2006년 2월 13일(월) 서울에서 대규모 농민집회를 개최하여, 정부와 정치권에 농업 희생의 근본 대책 및 쌀 대란 해소책의 수립·추진을 강력하게 촉구해 나갈 방침이다.

